

호랑이를 만나면 때려 눕혀라

니까, 그런 체제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집중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 구분되어야 해. 인력을 기르는 시스템은 아주 분명해야 해." 선지식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 승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승이 된 사람이 다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라 했다.

승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운 길목에 초막을 짓고 수행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과 물을 주며, 주고 재워 주는 공덕을 베푸는 것이 승의 살림살이라는 것이다. 공부의 과정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명리를 구하는 공부를 하지만 승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역경불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문자로 진리의 원음을 전하는 일이다. 선지식은 그 일에 매진했던 스승의 뜻을 이어 한 평생 역경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 사람부터 편하게하라

"씩 망하고, 새로 시작돼야 해." 선지식은 또 다시 말했다. 권력을 노리고 별별 짓을 다하는 사람, 자신의 본분사를 잊고 날뛰는 사람들이 씩 망하고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지식은 "그런 세상은 자기를 살피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가다듬고 '관세음보살' 하고 침실 밖 벽에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세음보살', 저녁에 잠들기 전에 '관세음보살'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 세 번씩만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에게 귀의하며 자신을 다잡으면 스스로 '나는 제대로 된 불자인가?' '나는 부처님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며 자신을 살피게 된다는 게 선지식의 가르침이다. 바르게 귀의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바르게 받들고 살 수 있다. 스스로 탐욕과 집착에 물들면 그 자리에서 탐착으로 망해버리고(탐착을 흘출 털어 버리고) 새로 순수해 지라는 것이다. 순수로 귀의하고 순수로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선지식은 '부처님과 나 자신을 묶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은 정각을 얻은 후 "일체 중생이 다 부처건만 망상 집착 때문에 부처임을 모르고 있어 딱하다. 내 방편으로 스스로 견져 내어 스스로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고 했다.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길, 거기에는 스스로 부처임을 아는 것과 부처가 되려고 애쓰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를 두고 선지식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 주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주루(走壘)를 요령껏 해야 하듯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슬기롭게 알아서 행동하라는 비유도 덧붙였다.

맑은 물 더럽히는 물고기는 누구냐?

"신혼본분(新薰本分)을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해." 선지식은 교리(敎理)와 선리(禪理)를 아우르는 지혜를 기르라고 말했다. 예로부터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라 했다. 2006년 가을, 교종 본찰 봉선사는 '10대 강백 초청 경전대법회'를 10주간 봉행했다. 그 회장에서 10명의 강백들은 교를 떠난 불교가 있을 수 없고 교에 의지하여 얼마든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음을 설파했다.

선지식은 '신혼본분'이란 용어(用語)의 뜻을 몰라 짤짤대는 기자에게 "신혼본분은 본래 가진 밀전을 새로 손질해 만드는 것"이라 풀어주었다. 훗날이

있다고 하자. 훗날은 본래 맑은 물과 흙 알갱이가 섞여 혼탁해진 상태다. 본래 맑은 물은 우리의 자성이니 본분이다. 현재 흐린 물은 변화에 의한 뒤섞임이니 번뇌 망상이다. 이를 가라앉히는 노력이 참선이고 간경이다. 본분만 믿고 방치하면 무책임해 질수 있고 신혼에 끌리면 속입수에 얽혀 든다. 이게 중생의 삶이다.

선지식은 본래 맑은 물을 더럽히는 물고기를 한 마리씩(혹은 수 십 마리씩) 기르는 중생들을 위해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이 되었는가를 살피라. 살피고 또 살피면 벗어나는 길이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매사에 적극 대처하는 용맹심 길러야

시비해리(是非海裏) 횡신입(橫身入)

표호취중(豹虎叢中) 자재행(自在行)

선지식의 방에 걸린 액자에 스승 율허 스님이 써 주신 글이 담겨 있다. '시비의 바다에 몸을 던지고 들어가서 포범과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가운데서 결립 없이 행동하라'는 뜻이다. "스승께서 내 기질을 잘 보셨던가 봐. 내가 좀 싸움꾼 기질이 있거든. 이 봉선사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랬고, 시비는 피한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범이 있다고 몸을 숨겨도 그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 시비에 딱치면 시비를 해치고 살고, 범을 만나면 범을 때려눕히고 살아야 해.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용맹심이 없으면 안 돼." 스승의 유지를 풀이해 준 선지식은 호탕하게 웃어 보였다.


이 세상은 참으로 시비의 바다이고 표범과 호랑이가 득실대는 곳이다. 여기서 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새해 새 아침에 만난 선지식은 무한한 자비로 길을 열어 주었지만 아둔한 중생은 또다시 시비의 바다, 득실거리는 범의 무리 속으로 돌아와야 했다.

글=임연태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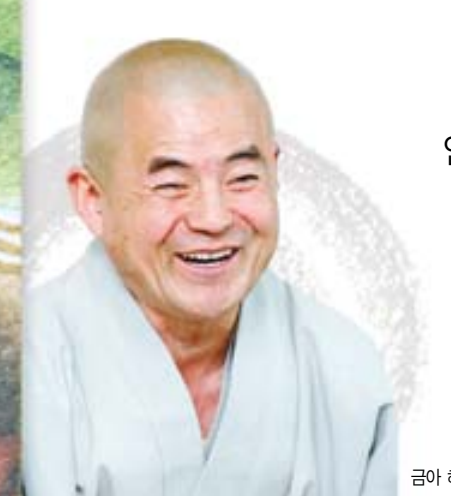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이 되었는가 살피라. 살피고 또 살피면 벗어나는 길이 보일 것이다”



부처님 성도절 대법회 불자화합 대축제

일 시 | 불기 2552년 1월 15일(음 12월 8일) 오후 2시(화요일)
 장 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
 법 사 | 금야 해국 큰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찬조출연 | 불교연합합창단, 추민수벨리댄스, LMB불교혼성 싱어즈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
 후 원 | 동학사승가대학, 백제불교문화대학, 대전시청불자회, 충남도청불자회, 대전 5개 구청 불자회, 경찰불자회, 운전불자연합회 대전지회, (사)대한불교금강종,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불교신문 대전지부
 연 락 처 | 용화사 041)541-1505, 011-405-1506



금야 해국 큰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